

2023 수능 이후 입시 일정

● 수능 ● 정시
● 수시 ● 추가

2022년 11월							12월							2023년 1월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1	2	3	4
6	7	8	9	10	11	12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25	26	27	28	29	30	31	29	30	31					26	27	28					

17일(목) 수능
17일(목)~21일(월) 문제·정답 이의신청
30일(수) 정시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

9일(금) 수능 성적 발표
~14일(수) 수시모집 전형기간
15일(목) 수시 합격자 발표
16일(금)~19일(토) 수시 합격자 등록
27일(화) 수시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12월 29일(목)~2일(월) 정시 원서접수 기간
5일(목)~12일(목) 가군 모집 전형
13일(금)~20일(금) 나군 모집 전형
25일(수)~2월 1일(수) 다군 모집 전형

6일 정시 합격자 발표
7일~9일 정시 합격자 등록
17일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일~28일 추가 접수 및 전형 기간
28일 추가 등록 합격자 발표·등록

대학별 고시 일정
논술·면접

논술			면접			
논술 일자	인문	자연	면접 일자	인문	자연	인문·자연
11월 18일(금)	송실대		11월 19일(토)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세종대(경의소프트) 창의인재(면접형)	
11월 19일(토)	건국대, 경희대, 경희대(국제), 단국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국항공대	건국대, 울산대(의예), 서강대, 수원대, 경희대(의치약한), 경희대(국제), 서울여대, 숙명여대, 송실대, 한국항공대	11월 20일(일)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세종대 창의인재(면접형)	세종대 창의인재(면접형)	
11월 20일(일)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수원대	가톨릭대(의·약), 경희대, 경희대(국제),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홍익대	11월 25일(금)			서울대 일반 명지대 크리스천리더
11월 21일(월)		서울과학기술대	11월 26일(토)	고려대 일반·학업우수형 국민대 국민프런티어 명지대 명지인재면접 숙명여대 숙명인재 II (면접형) 송실대 SSU미래인재 연세대 학생부종합(국제형)	단국대(중) SW인재 서울대(의·치·수) 일반 숙명여대 숙명인재 II (면접형) 송실대 SSU미래인재	
11월 24일(목)	가천대		11월 27일(일)	숙명여대 숙명인재 II (면접형)	고려대 학업우수형 국민대 국민프런티어 명지대 명지인재면접	
11월 25일(금)	연세대(미래), 한국기술교육대	가천대, 연세대(미래), 한국기술교육대	12월 02일(금)			서울대 지역균형
11월 26일(토)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국외대(글로벌), 한양대	경북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부산대, 중앙대, 한국외대(글로벌)	12월 03일(토)	건국대 KU자기추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가톨릭대 가톨릭지도자추천	가톨릭대(의·약·간호) 학교장추천 가톨릭대 가톨릭지도자추천 건국대(이과·건축) KU자기추천 서울대(의·수) 지역균형 송실대 SW우수자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11월 27일(일)	광운대, 덕성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국외대(글로벌)	덕성여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공학대	12월 04일(일)	건국대 KU자기추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건국대 KU자기추천	가톨릭대 잠재능력우수자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12월 03일(토)	인하대, 한양대(에리카)	아주대, 한양대(에리카)				
12월 04일(일)	아주대	인하대				



수능이 끝이 아니다... 대입 레이스 '막판 스피트'

영어 영향력 대학별 상이... 일부 영역 활용 지원도 유리

백분위 과거 입시결과 비교 의미 없어
대학별 수능 환산점수 기반으로 확인

일부대학, 성적 우수영역 2·3개 반영
내일 송실대 시작으로 논술·면접고사

17일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2023학년도 대입의 막판 스피트가 시작된다. 아직 남은 수시 면접, 논술고사는 물론이고 수능 위주의 정시 지원 전략까지 공성을 펼쳐야 한다. 수능 다음날인 18일 송실대를 시작해 12월 11일까지 논술, 면접 고사가 진행되는 만큼 3주간은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대학별 수능 활용 지표·영역별 반영 방법 알아보기

정시에서는 대부분 수능 외 다른 평가 요소를 두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마다 수능 점수를 활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대학 지원 시에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많은 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을 활용해 성적을 산출하지만 일부 대학이나 모집단위는 성적이 우수한 3개 영역 혹은 2개 영역만을 반영한다. 수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받은 영역이 있다면, 일부 영역만을 활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서울 소재 대학들은 서울여대와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 성공회대 등에서 일부 영역을 반영하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국, 수, 영, 탐 중 3개 영역을 반영(수학과의 경우 수+국영탐 중 택 2)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과목별 반영 비율에 있어서도 대학 간 차이가 있다.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인문 II, 중앙대, 한양대 상경계열 등은 인문계열임에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 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오전 서구 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8시험장(서석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 /뉴스시

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높고, 자연계열은 건국대 자연 II, 경희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에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가장 많으나 상위권 대학은 대체로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 탐구 영역은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해 학생의 성적을 산출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대학이 학생의 성적을 평가할 때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 백분위를 과거 입결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대학별 환산점수를 가지고 경쟁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확인하고 정시에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영어 반영 대학별 제각각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영어 영역과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 중 한국사는 정시 선발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영어의 경우 대학별 등급 간 점수와 반영 방법의 차이로 지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영어 외 영역으로 총점을 계산한 후 영어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를 가산 또는 감산한다. 서울대는 영어 영역의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0.5점에 불과하고, 타 대학들도 영어 영향력이 낮은 편이다.

반대로 영어 반영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높은 곳도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성신여대가 30%를 반영하고, 동덕여대와 서울여대도 영어의 비중이 30% 이상이므로 영어 성적이 좋은 경우 유리하다.

◆19일 '18개교 논술고사' 격전

수험생들은 수능을 마친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수시 대학별 고사를 치러야 한다. 서울 소재 대학을 기준으로 수능 이후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전체 선발인원의 68.9%, 논술은 85.1%이다.

수능 다음 날인 18일부터 송실대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고사가 이어진다. 특히 19일에는 수능 직후임에도 18개교의 논술고사가 겹쳐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주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과정에 포함되는 구술고사도 19일부터 실시되므로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세부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논술고사에 대해 인문계열은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 그 의도에 맞는 답변을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학 문제의 풀이과정과 채점 기준에 포함되므로 정확하고 세밀한 풀이과정을 서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면접 대비 전략의 핵심은 지원 대학 및 모집단위의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각 대학의 전형 유형에 따라 면접 유형과 평가 방법이 다르므로 대학별 기출 문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은 하나의 정형화된 답을 만들어 외우기보다는 제시문을 다각도로 분석해 여러 답안을 만들어 구술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